



“환경! 이것은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입니다”

- (주)빙그레 환경안전팀 김성은 대리-

전세계의 경제 및 21세기를 좌우하는 환경은 이제 우리모두의 책임이며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주먹구구식 대응은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때문에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환경경영시스템 도입과 이를 관리하는 환경관리인의 임무가 점점 막중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현장에서 묵묵히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선진 환경관리를 위한 지식의 습득을 놓치지 않고 있는 (주)빙그레 환경관리팀 김성은 대리를 만나 젊은 환경인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그의 환경에 대한 사랑은 96년 환경부 장관, 98년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편집팀

(주)빙그레의 환경관리 현황은?

빙그레는 초 일류 종합식품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제품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저가 관리하는 도농공장은 1, 2, 3공장으로 구분되며 제 1공장은 우유, 요구르트 등 유음료를 생산하고, 제2공장은 아이스크림을, 제 3공장은 제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각 공장별 전문화된 설비로 제품이 생산되는데 발생 원폐수의 농도 및 성상의 차이가 심하고 처리장의 이원화에 따른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94년도에 공동방지시설로

관리를 일원화하였으며 총 처리능력은 일일 2,650톤입니다.

처리공정은 1차 전처리 시설인 가압 부상조와 UASB공법의 혐기성 소화조로 전처리 한 활성슬러지법으로 폭기조에서 재처리후 3차로 방류구 전단에 SAND FILTER로 FILTERING 하여 탈수장 및 소각로의 냉각수 및 세정수로 일일 폐수의 400톤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방류되는 폐수는 회사 내부적으로 BOD, COD, SS 모두 20mg/l 이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폐수처리의 효율적 관

리를 위해 자체 분석실을 운영, 모든 운전상황을 판단합니다. 폐기물은 고정 화력자 직연소 방식으로 기존의 수냉식에서 내화벽돌로 교체하여 사업장내의 폐기물을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후 자체처리 하고 있습니다.

대기분야는 청정연료 전환의 1차 사업으로 2, 3공장의 연료를 기존의 B-C유에서 LNG로 대체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중기계획으로 1공장의 B-C유 연료도 LNG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저감 노력으로는 생산 부문에서 TPM 운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비개선 및 공정분석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업무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대학 은사님의 권유로 환경기사 자격증의 취득이 환경과의 인연이었습니다.

학부 전공이 화학이었고 졸업 후 연구소에서 서울시 상수원의 오염도 분석 및 측정업무, 지하수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보다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환경을 접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의 회사를 선택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내 환경관리를 위해 이론적 지식의 습득을 위해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환경관리인으로서의 고충은?

환경의 문제는 이제 환경관리인의

작금을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힘들이지 않고도 PC하나로 넘쳐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통해서 현장실무에서 high-technology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한참 벤처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 능력있고 경쟁력을 갖춘 환경관리인이 많이 배출되어 환경보전은 물론 환경산업이 국가산업으로 발전하는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은 아닙니다. 제가 입사한 90년도 초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제조에 대한 이익창출에 밀려 환경이 소비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이런 사고의 보편화로 환경의 투자는 이선으로 밀렸고 이에 대한 설득과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힘들었습니다. 또한 시시각각 바뀌는 법에 따른 혼란을 겪을 때가 있네요.

보람을 느꼈을 때도 있었을텐데.....

현장이 변할 때 입니다. 작업자의 인식전환, 최적의 방지시설로 효과를 극대화 했을 때 그동안의 어려움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보다 경쟁력이 있는 환경관리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점은?

환경을 하면 할수록 여러 학문이 집약된 토털 공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 내에 여러 분야를 섭렵하기란 쉽지않은 일이지만 일정기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실무와 연계하여 습득한다면 해당 전공자 못지않은 know-how가 축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금을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힘들이지 않고도 PC하나로 넘쳐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통해서 현장실무에서 high-technology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한참 벤처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 능력있고 경쟁력을 갖춘 환경관리인이 많이 배출되어 환경보전은 물론 환경산업이 국가산업으로 발전하는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환경관리인으로서 바라 본 국내 기업들의 환경관리 수준은?

한마디로 대단히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매년 여러 업체를 견학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때마다 시설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가 새로워짐을 느낍니다.

문제점의 노출을 꺼려했던 과거와 비교할 때 경영자의 마인드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바뀌었고 행정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는 자발적인 문제해

결 의지를 최근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사이버 민원 접속전수를 봐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목표는

현재의 경험을 살려 기회가 된다면 제도 및 시스템 구축이나 설비부문에서 실무경험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나름대로 지식습득을 위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사내 환경관리가 항상 법과 제도위에서 앞서나가도록 끊임없는 개선과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인연합회에 바라는 점

사회단체로서 환경관리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한층 필요하며, 이로 인한 환경관리인의 입지와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정보 및 기술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월간 환경관리인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에 더 많은 힘과 정열을 쏟아야 할 것이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있을 때 환경인의 영역이 더 넓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환경관리인 및 예비 환경관리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환경에 접근하는 직종은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오염물질 저감에 참여하는 방법, 환경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방법, 환경에 관련된 행정 및 입법과 제도에 참여하는 방법, 이 모든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환경관리인이라고 봅니다. 21세기는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그리고 환경이 사회모든 산업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삶의 질의 추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므로 환경산업은 첨단산업으로서 더 한층 사회적 국가적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환경의 일선에서 수 년간 경험한 바로 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은 분야로 생각됩니다. 나름대로의 노력이 없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정체될 수밖에 없으며时时刻刻 변화되는 제도를 일일이 체크하고 실정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이란 분야는 누가 하더라도 해야할 일이며 그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야로 환경을 접근한다 하더라도 자기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곧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